

學問을 상실한 大學 危機의 극복방안

趙 東 一

(서울大 國語國文學科)

1. 問題 提起

대학의 위기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택일의 입시에 적응하느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학생을 상대로, ② 외국에서 수입한 기존 지식의 전달자 노릇이나 하는 교수가 상투적이고 고식적인 강의를 수준을 한껏 낮추어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탓에, ③ 대학에서 학문 연구를 하지 못해, 우리 역사 발전의 지침이 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

안이한 교육개혁으로 이런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교육에 힘써 가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등의 공허한 처방을 늘어 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낡은 수법은 버려야 한다. 설사 그 말대로 된다 해도 위기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오던 수준의 교육개혁은 시행착오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목청을 돋우어도 기대할 것이 없다. 오히려 관계당국에서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차질이 더 심해진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분야에는 일제히 서광이 비치는데, 교육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한 데 있다. 교육의 위기는 학문의 위기에서 비롯한다. 교육의 근본인 학문을 죽여놓고, 교육을 잘하라고 지시하고 혼계하니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을 위해서는 잇물 맑기가 위에서 경신차리기이다. 위에서 경신차려 學問을 살려야 敎育이 살아난다. 학문이 무엇인지 짐작하지도 못하면서 교육을 좌우해온 권력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일 수 없다. 부정을 방조해 왔다는 혐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교육부가 전혀 학문부일 수 없으면서 대학을 무리하게 다스려 학문을 망치게 한 때가 장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학문을 하는 당사자가 나서야, 학문을 살려 교육을 살리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대학에 제직하는 동안 30여 권의 연구서와 100여 편의 연구논문을 쓰면서 학문을 하기 위해, 학문을 살리는 교육을 하기 위해 애썼다. 학문을 못하게 하는 여건과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싸워왔다. 그렇지만 制度改革은 혼자 할 수 없고, 다른 교수들과 힘을 합친다 해도 성사될 수 없다. 그래서 비통한 소원으로 남아 있는 과제를 여기서 제시하려고 한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문을 상실한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만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하나는 대학별 논술고사를 반드시 실시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고, 모아들이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수의 강의와 연구를 일치시키도록 해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를 이어받을 인재를 기르자는 것이다. 그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먼저 입시를 시비하고, 그 다음에 입시와 강의의 관계를 살피고, 끝으로 강의와 연구의 연관을 말하면서 일관된 논의를 펴겠다. 입시를 다소 길게 거론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다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입시·강의·연구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료는 내 자신의 체험이다. 그러던 객관성이 없다고 나무랄지 모르나, 당사자가 절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제삼자들의 소견보다 더욱 타당한 논거이다. 능력이 모자라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넣기 위해 대학의 문턱을 한껏 낮추고, 입시제도를 유리하게 바꾸려고 별별 주장을 다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대학에 관한 정책결정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여론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투기꾼의 여론에 따라 토지정책을 세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육은 학문을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이 모든 제도 결정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2. 入 試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에서 오랜 기간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새 제도에 의해 1994년부터 피살될 수 있게 된 大學別 考査를 보류하라고 교육부장관이 앞장서서 유도하는 기이한 사태가 1993년 4월 현재 벌어지고 있다. 힘들어 얻어낸 대학의 자율권을 대학 운영자들이 다투어 포기해, 민주화시대의 여망을 역행하니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학별고사를 주관식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해묵은 주장에도 새로운 구실을 보태, 모처럼 만든 새 제도를 실시해 보기도 전에 뒤집어엎으려 하는 책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관식 논술은 채점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되풀이되는데, 재판을 할 때 유리인가 무리인가를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없으니 그 일을 컴퓨터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지이다. 일이 번다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별고사 실시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직무유기이고, 대학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폭거이므로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

교육부에서 새로 내놓는 대학별고사 보류의 이유는 과외공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외공부는 본고사 실시와는 관계없이 그전부터 있었고, 이미 심할 대로 심해졌다. 대학별고사가 과외공부의 폐단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공부해야 할 분량이 더 많아지니 과외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대학별고사의 핵심인 논술 위주의 국어와 문제 풀이 과정을 평가하는 수학은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논술고사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독서, 창의적인 능력, 정확한 표현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과외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공부와 가장 거리가 멀다. 학생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스스로 노력해야 향상이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타난다. 공부가 즐겁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공부가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판단해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하여 앞날을 슬기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논술고사 덕분에 생긴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학부형의 불안한 심리를 고액 과외공부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 때문에 과외가 더 심해진다고 우려할 만하다. 그러나 돈을 들인다고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지는 않으니, 빈부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이 확대될 염려는 없다. 독서하기 싫고 사고하기를 귀찮게

여기는 아이를 과의선생에게 붙들어 메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면 과의공부가 줄어든다. 과의는 객관식택일 방식의 입시와 함께 사라졌다. 한 단계 더 개혁을 해서, 수학능력 시험마저 없애고 내신성적과 대학별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내용의 논술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입학 여부를 결정하면 과의공부가 결국 사라질 것이다.

학생이 독서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공부를 더 잘 하도록 하는 조연자나 평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교사가 있다. 학교교사가 자기 기본 임무를 과의선생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지도방식을 근본적으로 쇠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입시참고서 몇 권으로 한 해를 보내던 관습을 청산하고, 학연구의 자세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고교교사문과 대학교수가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고교교사도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수라고 하고, 자격요건도 같게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해야 성과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고 입시참고서를 추방할 수 있다. 지금 사용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국어 교과서는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를 관계 당국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책 값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 교육을 망친다. 분량이나 값이 몇 갑절인 총천연색 입시참고서가 많기도 팔리고 대단한 위세를 누리는데, 敎科書는 아직도 초라한 모습으로 궁상을 떨고 있어 사회발전의 불균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학교교육이 얼마나 낙후했는가 정확하게 나타낸다.

고등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를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내용으로 꾸며 독서와 사고의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양서를 널리 찾아 이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도서실에 책을 제대로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나, 입시참고서 구입 대금으로 제대로 된 책을 여러 권 사서 서로 돌려 읽을 수 있

다. 유럽, 특히 영국의 고등학생들은 자기네 고전에 대한 해박한 독서를 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집중 연구해서 논문을 써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부를 우리도 해야 한다.

몇 장 되지 않는 알팍한 교과서, 하루면 다 읽고 한 주일이면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에 몇 년씩 매달려 객관식택일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지나치게 자세히 따지고 드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이다. 학교에서, 입시학원에서, 과의에서 그 짓을 끝없이 되풀이한다. 가장 나쁜 의미의 천착을 일삼아 거시적인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는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 모호한 답은 적어 맞추어 점수 따는 비법을 익혀 장차 투기꾼으로도 성공할 수 있게 훈련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문을 아무리 개혁해도, 교육이 죽어 있어 희망이 퇴색된다.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민중사의 거대한 과업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그 모든 병폐가 교육이 잘못된 데서 비롯한다. 그대로 둘 수 없는 심각한 병폐를 뿌리에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입시 부정을 막는 것이 교육개혁의 본질적인 과업은 아니다. 도덕교육에 힘써 사회를 정화하면 된다는 안이한 주장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질서 존중을 앞세워 혼계를 일삼으면, 반발을 불러일으켜 갈등이 증폭된다.

교육의 기본지표를 기존 질서수호를 위한 교육에서 歷史創造를 위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다듬어 창의적인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잘못된 세상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고, 바람직한 미래를 슬기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敎育改革의 핵심 과업이다.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존 지식 수업을 능사로 삼지 말고, 학문 발전의 주역이 되어 세계사실계의 일반이론을 창조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마친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쳐야 대학교육이 정상화된다.

그런데 교육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대학별고사

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대학은 그런 임무를 스스로 포기했다. 자기 대학에 대한 평가를 자진해서 낮추었다. 그러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창조적인 작업을 맡겼다고 나서는 것은 무리이다.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도, 대학원교육은 분에 넘치니 학자를 배출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난립되어 있어 폐단을 자아내므로 이번 기회에 차별을 가시화해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학원까지 두는 9년제 대학, 학부교육만 하는 4년제 대학, 2년제의 전문대학으로 대학을 삼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싶다. 대학원까지 두는 소수의 9년제 대학이 앞서 나가면서 다른 대학을 이끄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지만 여자대학이나 지방 국립대학 가운데는 앞서 나가겠다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 문제가 된다. 여성의 능력이나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그릇되게 판단한 잘못을 용납할 수 없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 에쓰고, 학자를 계속 길러낸 지금까지의 공적을 자진해서 허물어뜨리더라도 험들이지 않고 입시를 치루는 것이 이롭다고 장사치처럼 계산을 한 잘못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자기 위치를 되찾아야 한다. 정신차린 교수들이 나서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입시의 잘못이 교수 양성과 충원의 잘못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간에 차단 장치가 없다. 잘못 선발된 학생이 상투적이고 고식적인 강의나 들으면서 창의력을 더욱 고갈시키다가 돈만 들이면 얻을 수 있는 합량 미달의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학문을 죽여 교육도 죽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대학이 멍들고, 학문이 망하고, 나라가 기울어진다.

3. 入試와 講義

대학교육을 살리려면 講義 方式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세계학문을 다시 검토해 일반이론을 혁신하는 현장의 작업을 강의를 통해 전개해야 한다. 교

수와 학생이 그런 강의에서 만나 서로 도우면서 함께 분투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에쓰고 있어, 스스로 하고 있는 바를 들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이 강의는 제3세계문학을 널리 살피면서 그 문제점을 한국문학과 관련시켜 검토하는 내용이며, 제3세계문학을 근거로 문이론의 근본적인 쇄신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창의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강의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미 내놓은 저서『제3세계문학연구입문』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에서 고찰해 놓았으므로 이용할 수 있다. 단행본으로 나온 번역작품 가운데 다섯 권을 골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킨다. 올해에는 동남아 및 인도문학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월남·타이·인도네시아 문학 작품을 한 권씩, 인도문학 작품을 두 권 택했다. 학생들은 전에 하지 않던 독서를 하고, 새로 제기되는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며, 자기 견해를 글로 써야 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여서 차질을 빚어낸다.

이 과목은 교양선택과목이어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117명이다. 그 가운데 30명이 인문대, 19명이 사회대, 5명이 경영대, 10명이 법대, 23명이 자연대(의예과 포함), 1명이 공대, 11명이 농대, 5명이 미대, 4명이 음대 학생이어서 여러 분야 학생들이 교부교부 모였다. 작품을 읽어서 논하는 과제를 한 번 받았는데, 82명이 제출했다. 4월 22일에 중간시험을 실시할 때 87명이 응시했다. 그밖의 학생들은 너무 힘들다면서 대부분 수강신청을 취소했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제3세계문학사와 세계문학사’, ‘제3세계문학과 언어문제’, ‘제3세계 근대소설의 성립과 그 기능’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제에 내포된 쟁점을 논하고 자기 견해를 제시하라고 했다. 부제를 붙여 다루는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교재로 사용하는 저서에서 취급하고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지만, 쟁점을 찾아서 재검토하려면 학생이 스스로 애써야 하고, 자기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서 독자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시간에 책이든 노트든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게 하여 내용을 기억해서 쓰는 노력은 필요없게 했다.

세 가지 논제에 내포된 기본 쟁점은 세계문화사 전개에서 제 3세계문화가 어떤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세계문화 이해의 서양중심주의와 맞서서 제 3세계문화의 독자적인 발전과 보편적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입증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논란에 참가하기 위해 해박한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비를 분별하고 자기 견해를 제시하는 논리적인 사고가 더욱 필요하다. 문학을 근거로 삼아 세계사를 다시 이해하는 역사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그래야 하는 이유를 자각하고, 문제를 맡아 다루는 당사자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이다. 세계를 다시 인식하는 훈련을 하고 경험을 쌓아 각자 전공하고 있는 모든 학문에서 진요하게 쓰일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존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인 줄 아는 학생이 대다수여서 차질을 빚어낸다. 작품을 다루는 과제를 할 때에 어디 있는 말을 따오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바를 충실하게 적으라고 했다. 시험에서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한 바를 논증하는 데 힘쓰라고 했다.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나서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계속 머뭇거리기만 한다.

중간시험 채점 내역을 들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채점 기준은 (가) 주어진 논제에 내포된 쟁점을 찾아내서, (나) 적절한 자료를 들어 논의하고, (다) 자기견해를 제시했는가 하는 것으로 정했다.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으면 A로 평점했다. 그 가운데 둘을 갖추었으면 B로 평점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C로 평점했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를 갖추려고 했어도 결과가 미흡하면 D로 평점했다. 그랬더니 15명이 A로, 32명이 B로, 27명이 C로, 13명이 D로 판정되었다. F가 없는 것

은 그 후보자가 모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출제의 내용이나 방식, 채점 기준에서 대학입시 논술고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자료 제시형 논술고사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다루는 내용이 입학시험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어렵지만, 강의를 해서 이해의 정도를 높였다. 그래서 입학시험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입학시험이라 가정하고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면, A를 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합격해야 한다. 그 가운데 더러 특출한 답안이 있어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B를 받은 학생들까지는 입학할 허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없으면, 총원 117명 가운데 합격자가 47명이다. C를 받은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받을 자격이 부족하고, 학문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입학할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D를 받은 학생들은 입학할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D는 물론 C를 받은 학생들의 답안은 대부분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사고가 혼란되어 있다. 설사 그럴듯한 생각을 했어도 논리를 갖추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전달하지 못했다. 단락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 문장다다 줄을 바꾸기 예사이다. 교제의 일부를 그대로 베끼거나 자기 독립된 사실을 열거하면서 지면을 메웠다. 글을 이어서 쓰지 못해 분량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이다.

능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입학시험 성적이 비교적 낮다고 알려진 학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D를 받은 학생들의 학과를 들어보면 화학과, 수학과, 지질학과 각 2명이고 물리학과, 산림자원학과, 농학과, 성악과, 독문학과, 신문학과, 종교학과 각 1명이다. 해당자가 여러 학과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소속학과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 서울대학교 여러 학과에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은 광범위한 독서, 창의적 사고, 정확한 표현은 객관식택일의 입학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분명한 자료이다.

D급 지진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A급 인재들이 다른 여러 대학에도 두루 있을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그것은 2

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A급 인재를 서울대학교에서 독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나는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정말 뛰어난 인재가 어디든지 있는 사실을 체험해서 알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다. 입학시험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아 크게 알아주지 않는 대학에서 학문의 장래를 바꾸어 놓을 뛰어난 학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직접 깨달았으므로 세상의 편견을 시정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그 예로 두 사람만 들겠다.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안동대학 교수가 된 임재해가 있고, 경기대학교 출신이며 경기대학교 교수가 된 김현선이 있다. 두 사람 다 능력과 의욕이 뛰어나 학계에서 크게 촉망하는 인재이다. 임재해 교수는 이미 이론 업적이 대단하다. 김현선 교수는 포괄적인 관심과 예리한 논리를 갖추고 있어 학문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영남대학교에서 임재해의 석사논문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김현선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것은 지금까지 25년 교수 노릇을 해오는 동안에 있었던 가장 보람있는 일의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입시는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의 척도로 삼지 않았으므로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 양쪽이 어느 대학에든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C·D급 학생들은 특히 심한 착각에 빠져 있다. 입시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 희망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했으니,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던 공부를 반성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국어작문’ 과목에서 그런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객관식택일 입시 국어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국어에 도통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고등학교 때 잘못된 공부를 바로잡으려고 헛되이 애쓰면서 한 학기 3학점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대학에서 필요한 학문연구의 자세, 연구 자료의 분석, 설명과 논증의 방법, 논문작성법 등에 관해서 제대로 강의할 겨를이 없다.

입학시험 성적이 가장 높다는 대학의 교수가 지진아들을 상대로 고등학교에서 했어야 할 공부를 다시 시키는 성과없는 일로 진땀을 빼는 것은 공개하기 부끄러운 내막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실감이 나지 않을, 상식 이하의 추태이다.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노고는 더 클 터이니 사치스러운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른다. 다른 대학 교수들 가운데 자기 대학은 입학시험 성적이 낮아 지진아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학에서 국어나 작문을 가르치는 우리 동업자들은 어디서나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불필요한 고생에서 벗어나 대학교육을 대학교육답게 하기 위해서 대학별 논술고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994년이 대학교육 정상화 원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때부터 사용할 서울대학교의 국어작문 교재를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수준을 높여 다시 만드는 일을 직접 맡아 보람있게 하고 있다. 다른 모든 과목의 강의도 이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큰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그릇된 관습을 버리고, 후배들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용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구시대 마지막 학년의 추태를 보이지 말고 세시대 선두주자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의 시간에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그릇된 교육을 받은 것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객관식택일의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희망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한 것은 일제하에서 출세한 것처럼 그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가능했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진지하게 이르고 있다.

앞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교육을 포기하고 학자 양성을 단념하라고 한 것은 본의 아닌 발언이었다. 모든 대학이 대학이어야 한다. 학문을 교육 내용으로 삼지 않는 대학, 학자를 배출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므로 문을 닫거나 간판을 고쳐 달아야 한다. 몇몇 특정한 대학에서만 논술고사를 제대로 실시하면 광범위한 독서, 창의적인 사고, 정확한 표현 능력을 제대로 갖춘 학생을 그 쪽에서 독점하여 다른 대학은 대학이고 싶어도 대학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사회정의, 기회균등, 교육의 다양화를 다 망치는 참사이다.

4. 講義와 研究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이라는 강의는 내가 주장해서 처음 만들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전면 개편하는 시기에 새로운 과목을 제안해 뜻을 이루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문학이 제3세계문학임을 인식하고, 제3세계문학의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해 세계문학사 이해를 바로잡고, 문학이론을 위한 제1세계의 관점, 제2세계의 관점과 다른 제3세계의 관점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수강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그런 연구를 학생들과 공동연구로 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잘못된 견해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다시 해서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해와 능력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이상의 난관이 있다. 이런 과목은 하급 학년을 위한 교양과목이기만 하고, 상급 학년의 전공과목일 수는 없으며 대학원 과목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전공과목은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지 못한다. 전공의 세계는 냉엄한 分離主義와 엄격한 保守主義를 철칙으로 삼고 있다. 국문학과 교수는 국문학을 세분한 고정된 영역의 전공과목만 강의해야 하고, 학과의 장벽을 넘어서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포괄적인 영역에 진출할 수 없다. 그래서 강의와 연구가 어긋나고 연구가 막힌다.

나는 『한국문학통사』 다섯 권을 써서 정립한 문학사의 이론을 확대 적용해 한국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3세계문학론을 개척하는 한편, 동아시아문학사의 서술과 전개 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서 『동아시아문학사비교

론』이라는 연구서를 내놓았다. 그렇게 하면서 문학과 철학을 서로 관련시켜 함께 다루는 것을 지속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그 두 작업에서 더 나아가 『세계문학사의 이론』이라는 저서를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는다. 남북의 문화통일을 위한 설계도이며, 인류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창조하는 지침일 수 있는 이론 정립을 염원하고 있다. 그런 연구가 진척되면 국문학 교수로서 주어진 임무에서 더욱 멀어지는 차질이 생긴다. 학과 소속을 바꿀 방도는 없고, 그렇게 한다 해도 분리주의와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지금 형편으로는 우선 동아시아문학사에 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과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목이 포함될 수 있는 분야조차 없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비교문학 협동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 하는 여러 학과 교수들과 해를 넘기면서 애써도 성사되지 않는다. 기존 학과에서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원하는 분야의 강의를 ‘스스로 개척하는 길’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문학사의 역사철학을 강의하는 것은 대학의 편제를 무시하는 의도이다.

우리 선조들은 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어 연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펴면서 배우겠다는 동기 하나 때문에 모여드는 제자들과 깊은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 元曉에서 崔漢綺까지의 사상사가 이치의 근본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로 연속되어 온 것은 창조적인 활동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문자 그대로 배우고 물으면서 學問을 하기 위해 진력하고, 강의와 연구를 일치시키면서 敎學을 즐겨 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어 마땅히 계승해야 한다. 그런데 유럽에서 생겨난 근대 대학의 제도를 일본을 거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커다란 차질이 생겨났다.

근대 대학을 만들어낸 유럽에서는 교수가 무슨 과목이든지 개설해서 자기 연구를 전개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고, 그런 기풍을 미국에서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래 일반 이론 창조의 전통이 빈약한 조건에서 서양 학문을 규격화해서 수입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라

고 여긴 일본에서는 학과의 장벽을 만들고 교과과정을 고정시켜 번혁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그런 제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 조상 전래의 능력 계승을 막고 서양 학문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부터 한 세기 반 전에 독일의 헤겔이 베를린대학에서 역사철학을 강의하면서 세계사를 마음대로 논단했다. 헤겔 역사철학의 원리와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고, 헤겔을 비판하고 나신 마르크스의 역사관까지 넘어서는 거대이론을 만들어내서 세계 학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헤겔이 제 1세계의 학문, 마르크스가 제 2세계의 학문의 근본을 다터했으므로 그 둘을 극복하는 이론을 제 3세계에서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이론을 힘써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고, 제 1세계와 제 2세계의 대립 때문에 빚어진 고통을 가장 절감하는 처지여서 해결사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원리를 도출해 세계사의 바람직한 진로를 제시하는 임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나는 문학사연구를 발전시켜 그 과업의 일단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고자 한다. 헤겔의 정신사와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사를 포괄하면서 넘어서는 길을, 의식과 생활이 하나로 얽혀 있는 문학의 역사에서 찾으려고 한다. 한국문학사에서 동아시아문학사로, 동아시아문학사에서 제 3세계문학사로, 제 3세계문학사에서 세계문학사로 나아가 세계문학의 역사철학을 완성하면서, 조상 전래의 슬기를 살려 文史哲을 하나로 합치려고 한다.

이런 포부를 말하면, 건방지다는 핀잔을 들을 수 있다. 분수 모르는 헛소리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상의 능력을 왜 후손은 물려받으면 안 되는지 [묻고 싶다. 헤겔이 한 일을 왜 조동일은 하면 안 되는가 묻고 싶다. 헤겔은 독일인이고, 조동일은 한국인이어서? 헤겔은 베를린대학 교수이고, 조동일은 서울대학 교수여서? 헤겔은 천제이고, 조동일은 둔제여서? 헤겔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학교수는 누구든지 일상적인 업무로 삼아온 자기 이론 창조를 한국

의 대학교수는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겠다는 망상은 이제 비리야 한다.

헤겔과 조동일의 비교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해야 한다. 헤겔은 제 1세계의 관념철학자인 탓에 자기 의식 속에 폐쇄되어 바깥 세상 여러 문명에 대해서는 그릇된 상상이나 펼쳤던 것과는 다르게, 조동일은 제 3세계의 둔학사가여서 제 1세계·제 2세계·제 3세계에 관해서 두루 알고, 문학과 철학을 함께 다룬다. 지금 이곳에서 역사의 발전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세계사의 커다란 시련을 겪는 민족의 고난을 해결하면서 미래를 바람직하게 창조하는 인류의 지혜를 가다듬으려고 한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성사 여부는 노력을 한 다음에 가릴 일이지, 미리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잘났다고 뽐내려고 이런 수작을 늘어놓는다고 여기는 꼴록대장 수준의 시비는 그만두자. 한국의 대학교수는 누구나 그런 포부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강의해야 대학이 살고 학문이 산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던구스러움을 무릅쓰고 내 자신을 예증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대학교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전에 없던 講義를 開設하기 위해서, 동료 교수들을 설득하고 대학 당국의 허락을 얻고 정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 교수가 그런 특전을 본래부터 누리고 있어 헤겔이 헤겔일 수 있었다. 헤겔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교수가 학문의 창조자인 것이 당연하다 하고, 출판물 통해서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학설을 경청하면서 학문 발전의 선두작업에 동참해 후계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의욕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직 통일되지도 못한 후진 독일에서 역사 창조를 선도하는 학문이 일어났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경제력으로, 프랑스는 시민혁명의 정치력으로 유럽 역사를 이끌 때, 독일은 학문의 힘으로 그 두 나라에 못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제력과 중국의 정치력에 우리는 학문으로 맞서

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다. 일본과 중국의 학문을 우리 학문과 견주어 살펴보는 작업을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에서 하여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당한 規制를 당장 풀어주어야 한다. 교수가 어느 분야의 무슨 강의라도, 아무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개설해서, 새로운 연구를 강의 내용으로 삼아, 학과나 학년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하는 학생들을 공동연구자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은 강의를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니니 예산 타령을 앞세워 말을 막지 말아야 한다. 제도를 일거에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 희망하는 교수는 앞서나갈 수 있게 허용해 물꼬를 트면 근본적인 전환이 저절

로 시작된다.

5.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해, 대학을 살리고 학문을 소생시키는 가장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등학교 시절에 광범위한 독서를 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정확한 표현의 능력을 기른 학생을 대학입시에서 선발하고, 둘째로 연구와 강의를 일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힘입어 교수가 새로운 강의를 통해 전개하고, 학생을 공동연구자로 하여 가다듬으면서, 셋째로 우리 역사 발전의 지침을 세계학문의 보편적인 이론으로 정립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